

백악관 “이란과 협상 계속…패배 불인정시 더 큰 타격”

“트럼프, 지옥 불러올 준비” 경고…이란 종전 합의 압박 ‘이란 정권교체’ 입장 유지 “훨씬 더 우호적 인사 와야”

백악관은 25일(현지시간) 이란전 종식을 위해 이란과의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란이 군사적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하게 타격하겠다고 경고했다.

캐틀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라며 “현재로서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 오간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이란과 종전 협상 중이라며 이란이 핵무기 포기 등 주요 쟁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란 정권과 군부는 미국과 협상 중이 아

니라고 부인한 상태다.

이후 미국이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이란 측에 15개 사항을 담은 종전 제안서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미국 언론에서 나왔으며, 이에 대해 이란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보도도 이란 언론에서 이어졌다. 그러나 레빗 대변인은 지난 21일 저녁 이란 측이 대화를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해왔으며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레빗 대변인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15개 항목의 종전 제안에 대해 일부 맞는 내용도 있지만 잘못된 내용도 많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 대표단의 대면 협상 가능

성과 관련해서 “이번 주 후반에 열릴 수 있는 잠재적인 회담과 관련해 많은 추측과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백악관이 공식 발표할 때까지 어떤 내용도 공식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장대한 분노”(Epic Fury·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 작전의 핵심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근접해 있다”며 “우리 군사작전은 날이 갈수록 성과를 내고 있으며, 이란의 상업용 선박 위협 능력을 꾸준히 약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28일 작전 개시 이후 9천 개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하고 해군 함정 140척 이상을 파괴했으며,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 능력은 초기 대비 약 90%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란은 자신들이 무너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며 “바로 그래서 이란이 탈출구를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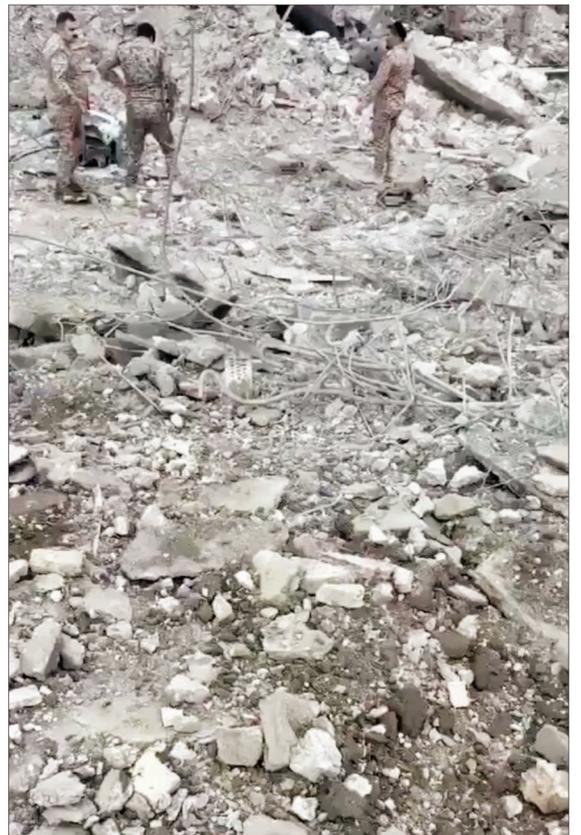
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나 평화로 우선시한다. 더 이상의 죽음과 파괴는 필요하지 않다”면서도 “이란이 자신들이 군사적으로 패배했으며 앞으로 계속 패배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어느 때보다 더 큰 타격을 입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허풍을 떠는 사람이 아니며 지옥을 불러올(unleash hell) 준비가 돼 있다”며 “이란은 다시는 오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레빗 대변인은 대이란 군사작전 과정에서 이란 수뇌부가 대거 사망한 상황을 사실상 정권 교체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 정권 지도부에 훨씬 더 우호적이고 협력 의지가 있으며 더 이상 ‘미국에 죽음을’이라고 외치지 않을 인물이 오길 바란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라크 안바르주 하바니아 군 진료소 인근에서 이라크 보안군이 건물 잔해 사이에 서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미·중 정상회담 5월 14~15일로 조정 “시진핑, 평리위안 여사와 올해 美 답방…일정은 추후 발표”

이란과의 전쟁 와중에 연기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및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이 5월 중순으로 재조정됐다.

캐틀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

과 시 주석의 오랫동안 기다려온 회담이 5월 14~15일 열릴 예정임을 기쁘게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올해 추후 발표될 일정에 따라 시 주석과 부인 평리위안

여사의 답방을 워싱턴DC에서 주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은 예초 이달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로 잡혀 있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하고, 전쟁이 예상보다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 달 정도(중국에)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양국은 정상회담 일정을 새로 잡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예정보다

한달 반 정도 늦춰진 시점으로 일정을 다시 잡았다.

레빗 대변인은 예초 예정된 방중 일정이 전쟁 탓에 연기됐던 터라 이번에 재조정된 일정까지는 종전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냐는 물음에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란 전쟁 기간을) 약 4~6주로 추정해왔다”며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계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는 고대하고 있고, 대통령은 5월 14~15일 방중을 고대하고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

컨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



